

특별기획

문동신 군산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국회 대응활동 돌입

기재 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방문, 새만금관련 예산지원 건의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이·통장연합 한마음대회 방문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25일 익산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회 익산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현장에 방문하여 격려 및 4대약 근전 관련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중앙지구대는 익산시 이·통장 1천여명이 참석한 한마음대회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처음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릴 수 있도록 중앙지구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중앙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을 찾아가 격려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경찰서 제작 홍보물품(부채춤)을 배부하여 주며 4대약 악 근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4대 사회와 및 경찰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기를 약속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앞으로 4대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중앙원기자

문동신 군산시장이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국회 대응활동에 돌입했다.

29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국회 상임위 심의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 남북2축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원을 건의했다.

문 시장의 이번 국회방문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다음날 2일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소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이다.

이날 문 시장은 김관영의원과의 기재

부 반영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 향후 국회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조경대 기획재정부위원장과 만나 새만금 부지확진 및 속도감 있는 내 부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시설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북2축 도로 건설사업 1,200억원 ▲동서2축 도로 건설사업 90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700억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군산출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속해있는 박주현 의원을 만나 군산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당부했으며, 유상훈 교육문화위원장

도 면담을 갖고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정부의 SOC사업 예산 축소를 내년도 국가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종 확정되는 국회 심의단계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정채권과의 공조 등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7년 국가예산사업으로 신규사업 28건 318억원, 계속사업 258건 1조5663억원을 목표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NS홈쇼핑 군산CC 전복오픈' 개최

9월 1일~4일까지 군산컨트리클럽서

'NS홈쇼핑 군산CC 전복오픈' 대회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군산컨트리클럽 리드 레이크코스(파72, 71.44야드)에서 열린다. 총상금 5억원 규모인 이 대회는 NS홈쇼핑이 KPGA 코리아투어의 공식 첫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프로골퍼 144명이 출전하게 되며, 전북지역의 김태훈 프로와 군산출신의 손준업 프로가 출전한다.

또 이 지역 출신으로 헬린지 대회 우승자인 양현용 프로 등이 초청 선수로 출전하여 자웅을 겨루게 된다.

대회는 KPGA 코리아투어 주관

방송사인 JTBC 골프를 통해 매 라운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되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예선과 본선 대회 기간 중 갤러리 입장료는 무료이다.

군산컨트리클럽의 박성주 대표이사는 "군산CC는 KPGA 프로(준회원)와 KPGA 투어프로(정회원) 선발전을 비롯해 KPGA 프론티어 투어와 KPGA 헬린지투어가 열리는 한국남자프로골프의 터전"이라며 "2009년 '동부화재 프로미배 군산CC매지플레이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총 6회도의 KPGA 코리아투어를 진행한 노하우를 살려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청 육상선수단, 전국대회 메달 풍년

전국실업팀경기서 금 4·은 2·동메달 1개 획득

익산시청 육상선수단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나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다.

여자 해머던지기 강나루(34) 선수는 노장의 후원을 발휘하며 56미터 5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원반던지기 조혜림(31) 선수도 52미터 60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중거리 신소망(24) 선수는 800

미터 1,500미터에서 2분 11초 15와 4분 35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 포환던지기 이미나(21) 선수는 15미터 62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여자 창던지기 이혜림(27) 선수도 48미터 22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포환던지기 김현배 선수는 16미터 96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육상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각각 획득하며 실업 최강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현을 익산시청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중앙원기자

익산시, 도심녹지 환경정비 추진

오는 9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요 가로변 수목과 공원을 정비한다.

익산시 산림공원은 8월 28일부터 추석 전까지 기간제근로자 52명을 투입해 가로화단, 교통섬, 공원, 녹지 등을 중심으로 제초작업과 가지치기 등 도심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익산시에는 공원 270ha를 비롯해 가로화단, 교통섬 등 총 320ha에 이르는 도심 내 녹지공간이 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추석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환경정비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중앙원기자

군산시립도서관, 12월 16일까지 시민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군산시립도서관이 하반기 시민문화강좌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시민문화강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6~7세 아동과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동화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드게임과 창의력 수학놀이, 초등 역사 독서 논술, 고전읽기를, 성인을 대상으로 힐링 꽃그림 세밀화 그리기, 캘리그래피,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 그림책 아름다운 입체지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강좌별 정원 마감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3만 원이고 재료비는 각 강좌마다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기간 할인혜택 제공업체 모집

군산시가 시간여행축제(9월30일~10월2일)와 가을여행주간(10월24일~11월8일) 기간 동안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업체를 모집한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 특별할인 가맹점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다음달 9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할인업체에는 각종 홈페이지와 언론, SNS, 축제장에서의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시간여행축제 주요행사인 3.5 반세 퍼레이드, 각시탈 게임, 어린이 독립군 체험 등에 참가하면 제공되는 할인쿠폰을 사용하면 되고, 가을여행주간에는 여행주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사용하면 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시간여행축제와 가을여행주간 동안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만족감을 높여 다시 찾는 군산 만물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전 직원 친절아카데미 교육 진행

의료계의 친절서비스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다.

양과 질을 높여왔던 의료서비스가 환자와 고객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런 트렌드 변화를 담아 환자 및 고객 중심의 경영을 표방 해 온 원광대학교병원이 2016 친절 아카데미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이 지난 5월 27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 병동1관 압센터 내 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해 온 이번 교육은 지난 28일까지 진 여정을 마무리 했다.

"환자 경험과 감성터치"라는 주제 아래 열린 2016 친절 아카데미 교육은 환자 입장에서 경험하고 이해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고객관점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 됐다.

원광대병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그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 해 온 원내 CS 강사들이 강의에 나서 이종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광대병원이 지난 5월 27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 병동1관 압센터 내 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원광대병원의 친절 아카데미 교육은 일상의 인사 예절, 전화 응대, 대화 예절을 비롯하여 업무 현장에서 환자나 고객을 마주하였을 때 무심코 소홀할 수 있는 언행 위주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교육에 담았다.

차연화 원광대병원 Q팀장은 "어느 의료기관을 환자와 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는 항상 핵심이 되어 왔다. 친절결함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여러 요인들에 의해 소홀 해 지기 쉽다"며 "한결같은 친절결함을 유지하고 자연스런 실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친절교육을 시행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중앙원기자

익산시의회 임사회

9월 7일까지 의정활동 돌입 조례안 21건·동의안 5건 등 일반안전 심의 계획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29일 제 197회 임사회 개회식을 갖고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 2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등 일반안전 심의와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황호열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전라북도 시군 견제순 재정립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도시의 서열로 인식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시군 순서가 견제순 즉 도시의 설치 순서에 따르고 있어 도시의 위상과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인 시군 순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여름은 기록적인 무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피해가 많아 농민들의 시름과 고통에 무척 안타까운 마음 글한 길 없다고 말하고 여름철 후반까지 더더위가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소병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사회는 예산안 심의를 비롯 2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등 일반안전 심의와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황호열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전라북도 시군 견제순 재정립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도시의 서열로 인식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시군 순서가 견제순 즉 도시의 설치 순서에 따르고 있어 도시의 위상과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인 시군 순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익산=중앙원기자



원광대 군사학과 재학생, 하계 병영체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군사학과는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육군 35사단에서 하계 병영체험을 시행했다.

총 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병영체험은 훈련을 통해 미래 군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기르고,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22일 입소식에 이어 안보교육과 제식훈련 등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으며, 각개전투, 구급법, 사격술

등 신병 교육처럼 강도 높은 훈련과정을 이어갔다.

특히 화생방교육에서는 가스 체험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병영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지난 일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중앙원기자

군산서, 교통사고 분석 안전문자 발송 '호응'

매주 월요일 정보제공 등의 시민 2만 2,000여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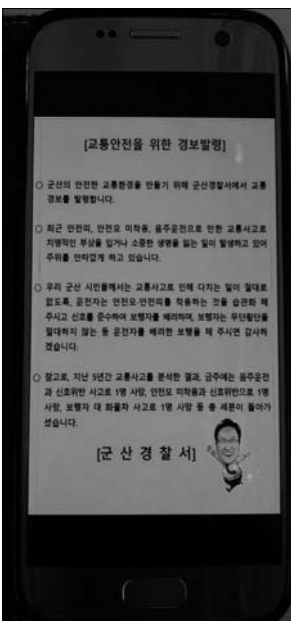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교통사고 분석 안전문자 발송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경찰청 관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사고 원인을 요일 시간 장소 주변여건 등으로 세분화하고 분석, 그 결과를 매주 월요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시민 2만20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16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87건으로 15년 대비 23%감소, 사망자는 15명(29%), 부상자는 1,394명(22%)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교통안전문자를 받아본 시민들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게 되었고 문자내용을 주변 사람들에 게도 알려주고 있다"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김동봉 서장은 "기존 단속과 일방적인 교통사고 홍보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 교통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